

김부겸, 오늘 광주 방문...민주당 심장부 '공략'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전 의원이 민주당 심장부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

내달 29일 전당대회 차기 새 지도부 선출 예정

광주시의회서 기자간담회 갖고 출마 입장 밝혀

한다. 김 전 의원은 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당 대표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오후에는 시청에서 인터넷 기자단과 간담회를 한다.

8일에는 오전 9시30분 광주 광산구청 광장에서 전국 최초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선별진료소를 둘러보고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 오후에는 전북 전주로 이동해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북 정치부 기자와 간담회를 하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한다.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회와 간담회를 한다.

민주당은 8월 29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전당대회는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다.

차기 당 대표는 김 전 의원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간 양자 대결 구도다.

이 전 총리가 우세한 가운데 김 전 의원은 '자치분권 완성' 등을 강조하며 민주당 심장부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당의 콘셉트로 풀어야 할 것 같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총체적 삶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고 구성할지 등을 묶어야 하고, 당도 역할을 더 두겁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文 약한고리 부동산

야권 "21번의 실패 김현미 바뀌라" 공세

야당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이를 지렛대 삼아 대어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이중재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차례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김 장관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 대책이 통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를 지시했는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중부세·양도세 인상 카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대통령도 확실한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김 장관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시중에서 '공포구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면서 "이 정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 사다리를 얹었다"며 "부동산 공포에 질린 국민을 위해 초당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비대위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주 집을 파는, 어처구니없는, 코미디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어 오르는 건지, 정부가 강남 집값이 안 떨어지

는 이상한 정책을 펴니까 공직자들이 안 팔고 있는 건지,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은 장관 질책 없이 기존 정책을 똑같이 말했다고, 국토부는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청와대 비서관들도 믿지 않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메시지를 바꾸고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평균적인 국민의 사정을 너무 모른다. 평생 집 한 채 사는 것이 소원인 분,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노영민 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부동산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뽐뿌한 한 채를 택한 것인데, 국민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 공직자들마저 대통령의 지시를 잘라먹고 주무장관 말을 무시하는데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된다는 김 장관은 대마도에 사는가,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는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내 팔부터, 내 다리부터 잘라내는 엄정함을 보여 달라"며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례하는 우원식·김영록·이개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회포럼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삼석, 興 최고위원 불출마...광주·전남 양향자 '유일'

"훌륭한 분들이 지도부 나서야"...이개호 의원도 '고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지역을 대표해 최고위원 출마가 예상됐던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6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선출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보다 훌륭한 분들이 지도부에 나서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애써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와 죄송스러운 마음을 드린다"며 "여러 날 품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보니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업을 지속하게 하며 국난을 극복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서 의원은 호남을 대표해 당 최고위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고, 광주·전남이 전국에서 당원이 가장 많은 당내 구도상 출

마할 경우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다.

평소 서 의원은 지역출신의 대권 후보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에 도전할 경우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자신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는 그 이후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로써 오는 8월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선출할 예정인 최고위원에는 광주·전남에서 여성 몫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이 유일하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이개호 의원(전남 함평·영광·담양·장성)도 출마를 고사하는 분위기다. 김윤호 기자

文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내림세 49.8% 부정평가 15주만에 최고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40%대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월 3주차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YTN 의뢰로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7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 취임 165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해 6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3.5%p 내린 49.8%(매우 ভাল 29.3%, 잘하는 편 20.5%)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2.8%p(포인트) 오른 45.5%(매우 잘못함 29.4%, 잘못하는 편 16.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7%p 상승한 4.7%다.

주중집계에서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3주차 이후 15주만에 처음이다.

긍정평가는 6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금·부정 평가 차이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3월 4주차 조사(긍정 52.6% 부정 44.1%, 8.5%p 차) 이후 14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3월 3주차 조사(47.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당층(61.8%), 중도층(52.5%) 부정평가는 각각 5.2%p, 3.0%p 하락하며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지지율 하락은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30대·50대, 중도, 사무직이 주도했다.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51.4%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7.4%p 하락한 긍정평가(44.4%)를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평가는 6.1%p 내린 47.2%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7.6%다.

연령대별로 30대(5.3%p ↓, 53.9% → 48.6%, 부정평가 47.2%), 50대(4.8%p ↓, 54.2% → 49.4%, 부정평가 48.7%), 20대(4.7%p ↓, 50.5% → 45.8%, 부정평가 48.7%), 70대 이상(4.5%p ↓, 47.4% → 42.9%, 부정평가 43.9%)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